10511 반영민

● **5월 12일 나의 하루는...**

학교에 여러가지일생긴날이다

자-105-9

출석부가 어딨는지 찾고 돌아다녀도 없었는데 핸드폰 보관함에
있었다는걸 나중에 알아냈다. 또, 어느 학생이 때리고 또때리고,
했는데, 싸울 뻔했다. 그학생의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그리고 소방학습을 하였을때 찬호가 예로 뚱뚱한 사람 이라고
나왔다. 찬호는 그래도 당당하게 자기의 몸무게를
말했다. 그런데 속에서는 창피했을거라고 생각했다.
음악시간 때 속이 안좋아서 노래를 못불렀다. 노래시간인데
아쉬웠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나서는 집에 갈려고
버스 카드를 찾았지만, 없었다. 거기다 비오는 날이기도 했다.
우산이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래도 15분정도 걸린다는것이기
다행이였다 집에와서 씻고 잘준비만생각하고 있었지만,
학교숙제가 있었는데, 못하고 자기만 했다 그날은 선생님한테
혼나는건 당연한 일이었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
Human & Memory Archives